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제조업 리스크 시작...연이은 연준 금리 인상과 강달러 탓
- Bloomberg: 파월 이번 주 의회서 “인플레 우려” 경고할 듯
- CNN Business: SF 연방은행 총재, “금리, 더 높고 더 길게 필요” 언급

[미국 금융]

- WSJ: 정크 등급 회사들, 다시 차용... 채권금리 다시 상승
- Bloomberg: 미 은행들 할 수 없이 저축금리 인상
- Bloomberg: 모건 스탠리, 단기적으로 미 주식 랠리 예상

[부동산]

- WSJ: 봄이 다가오지만 주택 시장 모멘텀은 정체

[글로벌 경제]

- CNBC: 중국, 2023년 경제 신중하게 전망한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근로자들 “주말 근무” 늘었다...인력 감소와 원격 근무 탓
- WSJ: 호텔, 레스토랑, 술집, 미국 고용 시장 이끈다
- WSJ: 에너지 업계, 환경 보호와 석유 수요 사이에 갈등
- WSJ: 반도체 칩 업계, 다행히 EV 덕에 수요 증가
- CNN Business: 반도체 대기업 TSMC, 올해 6천명 신규 채용 계획

[보고서]

- 모건스탠리 주간 에쿼티 전략: 베어 마켓 끝나지는 않았지만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Fed's Rate Moves Put Manufacturing Sector at Risk

미 제조업 리스크 시작...연이은 연준 금리 인상과 강달러 탓

- 미 제조 분야 약세 신호가 시작되고 있다. 금리는 오르지 수출은 줄면서 제조 분야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 ISM 조사에 따르면 제조 상품 신규 주문이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줄어들었다.
- 연준의 3개월 평균 이동선에 따르면 제조 생산이 지난해 5월부터 1.7% 하락했다. 항공기를 제외한 민간 자본재 장비 주문은 가장 높았던 2021년 11월과 비교 올해 1월에 3.4% 하락했다.
- Barclay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소비자와 기업이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는 것. 이 같은 제조 위축 현상은 침체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연준의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소비 가전제품이나 업무용 기계와 같은 값비싼 품목을 빌리는데 비용이 올랐다는 의미.

WSJ 기사

Bloomberg: Powell Set to Lay Groundwork for Higher Rates on Capitol Hill

파월 이번 주 의회서 “인플레 우려” 경고할 듯

- 파월의 의회에 출두해 경제 데이크가 활황을 보일 경우에 정책 결정자들이 바로 몇 주 전에 예상했던 수준보다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 통제를 위해 수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좀 당혹스러운 메시지라는 것.
- 워낙 예상보다 높은 일자리 증가세, 고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 강한 소비 지출 때문이라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More rate hikes are needed, says Fed's Mary Daly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금리, 더 높고 더 길게 필요” 언급

- Mary Daly 총재는 인플레 통제를 위해 이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더욱 긴축적인 금리 인상과 지속적인 높은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녀는 “물론 이로 인해 경제와 월가에 타격을 주고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높은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적절한 대응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WSJ: Junk-Rated Companies Are Borrowing Again

정크 등급 회사들, 다시 차용... 채권금리 다시 상승

- 채권 금리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용에 더 쉽게 접근하기 시작했던 낮은 등급의 회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올해 초에는 인플레가 둔화세를 보였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데 베팅한 것. 이로 인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신규 및 기존 회사채 수익률이 하락했다.
- 그러나 바로 최근에 인플레 지표가 올라가고 차용 비용이 또다시 올라 채권 판매가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경제 둔화를 원하는 연준에겐 좋은

소식, 반면에 차입이 필요한 기업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다.

WSJ 기사

Bloomberg: US Banks Are Finally Being Forced to Raise Rates on Deposits

미 은행들 할 수 없이 저축금리 인상

- 은행들이 15년 동안 하지 않던 비즈니스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예금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
- 예금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은행 예금은 1948년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바꿔 말해 순 인출액이 2천7백80억 달러에 달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 유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은 마침내 최저 금리에서 특히 예금 증서 즉, CD에 대한 은행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Capital One Financial Inc.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미국 대출 기관은 현재 1년 만기 CD에 연간 5%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대형 은행들도 거의 마찬가지. Wells Fargo & Co. 는 11개월 CD는 이제 4%를 지불하고 있다.
- 이 같은 CD와 기타 은행 예금 금리 인상은 소비자와 기업에게 잠재적인 이익이 되었지만, 예금 손실이 나는 은행은 대출 금리 둔화 등으로 특히 작은, 지역 은행의 경우 수익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organ Stanley Sees Near-Term US Stock Market Rally

모건 스탠리, 단기적으로 미 주식 랠리 예상

- 월가의 가장 약세 입장으로 보이는 전략가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의 Michael Wilson가 단기적으로 주식이 랠리 할 것을 예상했다.
- 그는 지난주 200일 이동 평균에서 S&P 500의 회복 탄력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국채 수익률과 달러가 계속 하락하면 S&P 500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 그는 랠리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 그는 펀더멘탈이 특히 수익 측면에서 계속 악화됨에 따라 시장이 중기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WSJ: Housing Market Momentum Stalls as Critical Spring Season Approaches

봄이 다가오지만 주택 시장 모멘텀은 정체

- 상승하는 모기지 금리가 미국 주택 시장을 식히고 있다. 특히 봄 판매 시즌을 바라보는 최근 구매자의 관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 최근 경제 데이터가 예상과는 달리 강하다 보니 연준의 긴축 금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모기지율이 오르고 있다. 지난 4주간에 걸쳐 모기지율이 3월 2일 현재 가장 높다(지난해 11월 초와 비교).
- 지난 2월 24일 끝난 구매자의 모기지 신청 건수도 계절 조정치로 지난 28년래 가장 낮은 것으로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보고서 결과 밝혀졌다.
- 주택 용자 비용인 모기지율이 오르면 당연히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줄어든다. 모기지율이 6.4%에서 7.4%로 오르면 주택 가격이 10%로 오르는 셈이 된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CNBC: China takes a cautious approach to its economy in 2023

중국, 2023년 경제 신중하게 전망한다

- 중국 정부가 이번주 일요일 발표를 통해 올해 중국의 GDP 성장 목표는 “약 5%”라고 밝히면서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중국 정부는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부동산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등의 위험을 이유로 중국 경제의 회복이 계속해서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이 크게 줄었고, 팬데믹의 영향이 약해진 만큼 중국 내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는지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았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Weekend Work Inches Up in Era of Layoffs, Out-of-Office Shifts

근로자들 “주말 근무” 늘었다...인력 감소와 원격 근무 탓

- 전 세계 13만명 이상의 1억 7천 5백만 시간에 달하는 업무 시간을 분석한 ActivTrack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들의 토, 일요일 근무 시간은 6.6시간으로 5%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테크와 미디어 업계가 전년 대비 25% 늘어났다.

- 이는 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해고를 이어가면서 인력이 부족해졌고, 근무 유연성이 늘어나면서 주중에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 원격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한편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현대업종, 의료 등의 분야는 주말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 대체로 “창의력”이 필요한 업계에서 주말 근무 비율이 더 높았으며, 서비스 업종도 주말 근무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을 보였다.

Bloomberg 기사

WSJ: Bars, Hotels and Restaurants Become the Economy's Fastest-Growing Employers

호텔, 레스토랑, 술집, 미국 고용 시장 이끈다

- 팬데믹 기간 크게 타격을 입었던 레저 및 현대 업계가 최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고용주로 떠오르면서 테크 업계의 고용 둔화를 상쇄하고 사상 최강의 고용시장을 유지하는 데에 힘을 싣고 있다.
- 구인구직 업체 Challenger, Gray & Christmas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후 미국 고용주들의 감원 발표 중 약 절반이 테크 기업에서 일어났다.
- 아마존이 1만 8천명의 직원을 해고할 때 식당 체인인 Chipotle Mexican Grill Inc.는 1만 5천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최대 소매 업체 Kroger Co.를 비롯한 식품 업체들도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격적으로 채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WSJ: Energy Industry Wrestles Over Going Green Too Fast

에너지 업계, 환경 보호와 석유 수요 사이에 갈등

- 이번주 월요일부터 석유 에너지 업계의 최대 규모 연례 에너지 정상회의에 기업 경영진, 기후 전문가, 정부 관료들이 모여 지난 1년간 심화된 청정 에너지 개발 경쟁과 늘어나는 화석 연료 수요의 상충하는 과제에 대해 핵심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업계가 탈탄소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힘을 쏟으면서도,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정학적, 시장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 미국의 IRA 법안은 청정 에너지 업계에 기대감을 불러왔지만,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프로젝트 비용이 오르고 공급망을 더욱 긴장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불러왔다.
- 따라서 “당분간 석유와 가스가 더 필요하다”며 상충하고 있는 에너지 요구 속에서 업계가 어떻게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고 그것을 비즈니스에 통합할 수 있게 될지가 앞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EVs Boost Chip Demand Despite Semiconductor Makers' Woes 반도체 칩 업계, 다행히 EV 덕에 수요 증가

- 반도체 칩 업계가 팬데믹 이후 휴대전화, PC 등의 분야에서 불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회복력을 불어넣고 있다.
-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 1대는 평균적으로 약 1천 2백개의 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10년의 두 배에 달한다. 게다가 EV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점차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한편 반도체 공급망 혼란으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발에 묶이는 등 칩 공급 문제가 자동차 제조 업체들에게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자동차용 칩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CNN Business: Global chipmaking giant TSMC plans to hire 6,000 employees this year 반도체 대기업 TSMC, 올해 6천명 신규 채용 계획

- 세계 최대의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TSMC가 이번주 월요일 본사를 두고 있는 대만 전역에서 엔지니어와 생산라인 운영자 등 올해 약 6천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발표했다.
-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전자 제품과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발표로 이목을 끌고 있다.
- 한편 TSMC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수익 감소를 예상했다. TSMC CEO는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모건스탠리 주간 에퀴티 전략: Technical Update and Analysis of Accruals that Supports Our Earnings Forecast 베어 마켓 끝나지는 않았지만

Equity markets survived a crucial test of support last week that suggests this bear market rally is not ready to end just yet. However, our GVAT team's analysis of accruals strongly supports our view that earnings estimates remain far too high; and therefore, the bear market is not over.

We could see further upside if the US dollar and interest rates continue their fall from Friday with next resistance for the S&P 500 at 4150 under such conditions.

모건스탠리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식당·호텔, 고용 가장 빠르게 늘리며 노동시장 호황 떠받쳐"

"빅테크 감원, 찻잔 속 태풍?..."경기후퇴 아직 아니다"

미국에서 호텔·식당·술집 등 접객업이 최근 가장 빠르게 근로자를 채용하며 일자리가 풍부한 노동시장의 호황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특히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최근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며 미국 경제에 불안감을 드리웠으나, 노동시장 지표가 여전히 강해 아직 경기침체의 신호는 아니라는 진단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초기 인력을 감축했던 레저·숙박 업계가 최근 인력을 다시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아마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구글 모기업 알파벳 등 빅테크와 금융·자동차 업계 등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감원에 나섰지만, 이들의 감원 규모보다 접객업 등 부문에서 채용하는 인력 규모가 더 커 지난 1월 미국 실업률이 53년 만의 최저치인 3.4%로 나타났다고 WSJ은 분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